

다산포럼

전염병에 속수무책이었던 ‘역병의 시대’



황 상 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오늘날 한국의 사망원인 1위는 단연 암이다. 연간 전체 사망자의 약 30%가 암으로 사망한다. 암으로 인한 사망이 이렇게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다. 암은 어느 연령에나 생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암 발생과 사망이 늘어난다. 유방암과 갑상선암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특히 60대 이후에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과거에 수명이 짧아 고령 인구가 적었을 시절에는 암 환자도, 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훨씬 적었다. 요컨대 무엇보다도 건강 상태의 개선으로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즘 암이 큰 문제가 된 것이다. 언뜻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현대문명의 병폐 때문에 일이 많아졌다는 주장에는 합당한 근거가 별로 없다. 그럼 과거에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병

으로 고생하고 또 죽어갔을까?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 즉 전염병이 사람들을 ‘죽도록’ 괴롭혔다. 그리고 1870~80년대에 세균학이 기반을 잡기 전에는 전염병의 정체도 원인도 몰랐고, 따라서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명권마다 역병(疫癘)에 대해 각기 나름대로 설명하고 대처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치료도 예방도 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 정약용(1762~1836년)이 살았던 시절은 어땠을까? ‘실록’의 기록을 통해 영조(재위 1724~1776년)와 정조(재위 1776~1800년) 시대의 역병 피해에 대해 살펴보자. 정약용의 후반 생애를 차지하는 순조(재위 1800~1834년) 연간은 역병에 대한 기록을 별로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은 역병 발생이 적었다기보다는 기록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달에 경기·호서·호남·영남·해서·관서·북도에서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되어 거의 셀 수 없을 정도였다.’(영조실록 1742년 12월 30일 자) ‘임금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들을 경성(京城)과 제도(諸道)에 보내어 여제를 배풀 것을 명하였다. 이때에 역병이 서로(西

路)에서부터 일어나 여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만연해서 민간의 사망자가 거의 5~60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영조실록’ 1749년 12월 4일 자) ‘8도에 여제를 살행하였다. 이때에 역병이 크게 치성하여 사망자가 10여만 명이나 되니, 중신을 보내서 제사를 살행하라고 명령한 것이었다.’(영조실록 1750년 3월 23일 자) ‘여러 도에 하유하여 두루 여제를 살행하게 하였다. 이때에 역병이 치성 만연하여 전국에 사망이 연달았는데, 영남과 영동 및 관북이 더욱 심하여 민호(民戶)가 10에 7~8이 텅 비었다고 하였다.’(영조실록 1770년 1월 15일 자)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여제를 지냈다. 하교하기를, 어제 함경도에 나갔던 어사의 말을 들은 결과 북관 백성들의 사정이 몹시 불쌍하다. 이태를 거듭 흉년에 시달리고 작년에는 조세 독촉에 곤욕을 겪었는데, 봄이 되자 역병이 저렇게 극성하다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편안히 앉아 있을 경황이 없다. 여제를 지내도록 하라. 하고, 이어 직접 제문을 지어 내려 보냈다.’(정조실록 1790년 5월 2일 자) ‘이해에 역병이 유행하여 경외(京外)의 사망자가 모두 12만 8000여 명이었다. 전

교하기를, ‘성 안팎의 가난하고 잔약한 백성으로서 자력으로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자나 죽어서 장사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부에 엄히 신칙하여 진출청에 뽑아 보고해서 연교(筵交)에 의거해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정조실록 1799년 1월 13일 자) 영조실록과 정조실록에서 역병의 피해 규모를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뽑아본 것이다. 인구가 기껏 1800만 명 내외(‘인구대사전’에 따름)이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1749년의 경우 역병 사망자가 5~60만 명이니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로 환산하면 무려 150만 명가량 된다.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 피해의 정도도 엄청나게니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당시의 대응 방식이다. 이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 지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염병이 창궐하면 기도와 제사, 굿 외에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전근대 시대 사람의 삶과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촌 특·특

안녕하지 못한 청춘 ‘아웃사이더’



정 헤 빈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대학캠퍼스 잔디밭 위에 삼삼오오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는 달리 혼자 벤치에서 늦은 점심을 먹거나 공간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캠퍼스의 ‘아웃사이더’들이다. 아웃사이더는 사회의 기성 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사상을 지니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흔히 ‘아웃짜’로 불리기도 한다. 요즘 대학교 내에는 이러한 아웃사이더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대학 이상 재학생 및 졸업한 구직자 3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7%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아웃사이더들은 학교에서 어

떻게 생활할까? 위의 조사 내용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대학 내에서 했던 아웃사이더 행동으로 ‘학과행사 불참’(59.7%,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출로 강의신청’(58.6%)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혼자 밥 먹음’(58.1%), ‘공강시간에 도서관에서 홀로 보냄’(53.8%)과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음’(46.2%), ‘동아리 가입 안 함’(37.1%), ‘밥만 같이 먹는 무리를 만들’(10.2%) 등이 있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학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자보니 필요한 정보들을 얻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니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53.8%)라는 의견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다. 즉 학과 생활이나 스펙 쌓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열한 학점 경쟁,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는 소통의 창구여야 할 캠퍼스에서 자발적으로 단절을 원하는 이들이 하나 둘씩 늘게 하였다. 이외에도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더

편해서’(52.7%),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41.9%) 등 다양한 의견이 아웃사이더 생활을 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나의 대학 생활도 다를 것이 없었다. 신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신문사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학과 친구들보다는 신문사 국원들과 어울리는 일이 잦아졌다. 학과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신문사로 향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혼자 다니곤 했다. 이 글 속 아웃사이더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인 듯하다. 신문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학과 생활 이외의 대학 생활의 다른 재미를 찾고 싶었다. 반복되는 일상에 벗어나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싶은 때였다. 학과 특성상 유니폼을 입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고, 내가 생각했던 대학생활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신문사 수습기사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했던 나인지라 망설여졌다. 얼마 있지 않아 그만두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주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무엇이든 해보고 결정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결국 지원서를 들고 신문사를 찾아가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나는 수습기사가 되어 1년 동안 신문사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어느새 신문사를 이끌어 가는 편집국장이 되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다. 나의 신문사 활동도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캠퍼스 안의 많은 아웃사이더들도 단지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남들보다 더 바쁘게 살아갈 뿐이다. 이들은 혼자일 뿐이지 나름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옳다 틀리다 말할 수 없지만 이처럼 혼자 길을 선택하는 젊은 청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개인주의 성향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취업문을 뚫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회 환경에 의한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점점 더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가 캠퍼스 안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기 고

공무원연금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채 길 성 광주시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 상임의장

지난달 24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새 경제팀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개혁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정부의 연금제도 개선은 사적연금 활성화와 직역연금제도 개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등 제도 마련에 나서는 한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 재정 재계산을 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제2공화국 장면 정부에 의해 1960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도입 당시에는 민간 기업처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정도로 국가재정이 열악했고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적은 보수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퇴직금 대신 미래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또한, 박정희 정부에서 국가주도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제도가 활용됐으며,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즉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고용주로서 노동자인 공무원에게 보험방식이 아닌 국가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부양제도로 설계된 것이다. 현재도 공무원은 민간보수와 비해 높지 않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금

지, 노동기본권 제한, 재직 중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퇴직 후 재취업 제한, 집단행위 금지,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사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공무원은 인기없는 직종이었다. 그 당시 공무원 보수가 연금에 대해 무관심이었다가 IMF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면서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신분 안정과 정년 보장이라는 장점이 중요도 떠오른 것이다. 이후 갑자기 공무원연금이 마치 대단한 특혜인 마냥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제도적 성격과 재정악화의 원인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재정적자를 공무원 집단 이기주의처럼 부추겨서 언론에 흘리며 호도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구 고령화, 공무원 구조조정 및 공사화 등으로 수급자를 양산하는 측면과 정부의 계획성 없는 방만한 연금운

영이 직접적인 적자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의 성격으로서 연금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별도 지급되지만,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연금, 퇴직금, 산재보험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부분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공무원과 정부가 반반씩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제도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고등문당 차원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을 개정할 바 있었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는 정책보다는 국민연금을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해줌으로써 재직 중 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성을 지키며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측면과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제한하는 보상의 성격 내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아주길 바란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사결정기구에서도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社 說

지역인재 유출 더 이상 방치는 안 된다

광주·전남의 인구 유출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유출 인구 가운데 10~30대 청·장년층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우수 인재들은 중학교에서 고교 진학 후, 고교에서 대학 진학 때,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 왔다뒤 수도권 등지를 향한다. 교육환경과 일자리 때문이다. 입시전문가들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학교 상위 5% 이내 최우수 인재 100여 명이 매년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광주를 빠져나간다고 한다. 주로 상산고·대일외고 등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가 이들의 목적지다. 광주시교육청도 해마다 최상위 중학생 120명가량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대학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지역 중상위권 인재들도 서울로 유출되고 있다. 일지리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대학들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과 의·차·약 계열 등 지역 대학의 주

요 학과는 외지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근 10년(2003~2012년)간 타 시·도로 유출된 호남인구 31만9000명 가운데 10~30대 청·장년층이 30만6000명(10대 4만2000명, 20대 24만8000명, 30대 1만6000명)으로 96%를 차지했다. 10대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20대는 대학 진학을 위해, 30대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충청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우수 인재들의 ‘호남 엑소더스’는 지역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이를 막으려면 광주·전남, 전북과 교육청이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과 일자리 여건 개선, 젊은층을 끌어들이는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는 등 교육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대학들도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키워내야 할 것이다.

여중생 선수 목숨 앓아간 무리한 체중 감량

전국대회 출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하던 유도부 여학생이 숨졌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55분께 무안의 한 중학교 유도장 사위실 욕소에서 A양(15·중2)이 호흡 곤란을 일으킨 것을 코치가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한다. 48kg급인 A양은 4일부터 영광에서 열리는 전국 중·고유도연맹전 출전을 앞두고 체중이 4~5kg가량 초과하자 감량을 하기 위해 반식욕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사인은 과카뿔혈증에 따른 심장 정지로 검인 결과 밝혀졌다. 과카뿔혈증은 음식 섭취량이 적은 상황에서 심한 운동을 할 경우 혈소판이 파괴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과학적 감량이 아닌 주먹구구식 살빼기를, 우리 학생스포츠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무리한 체중 감량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정상적인 발육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생명과도 직

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0월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고교생 레슬링 선수가 땀복을 입고 운동장을 뛰다가 쓰러져 숨졌으며 1999년 4월에는 체중 감량을 하던 여고생 유도 선수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비정상적인 체중 감량은 여전히다. 교육청과 체육계가 성적을 이유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교육당국과 체육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원스포츠의 전반에 대해 개선택을 마련해야 한다. 성적 지상주의 속에서 학생들의 ‘운동기계’ 전락,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 훈련, 부실한 선수 관리시스템 등을 우선적인 해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눈앞의 승패와 성적에만 급급하는 것은 진정한 스포츠정신은 물론 선수 개인의 잠재역량을 해칠 뿐이다. 경찰과 전남도교육청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해당 기관과 관계자를 엄정히 문책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88년 4월,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육군 보병 27사단에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배치된 곳이 중화기중대였다. 당시 중화기중대는 81mm 박격포 3개 소대와 90mm 무반동총 1개 소대로 구성됐다. 군 편제상 보병 중화기중대는 군인이 메고 다니는 화기(무기) 가운데 가장 무겁다. 90mm 무반동총은 적의 탱크를 최일선에서 격파하는 무기로 무게가 21kg에 달한다. 나는 무반동총 소대에서 2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일반 보병 소대원들이 완전군장(배낭)에 개인 화기(소총)를 메고 행군을 하지만 중화기중대원들은 여기에 3개로 분리되는 박격포와 무반동총을 더 맨다. ‘이기지부대’라는 별칭을 가진 27사단은 군기가 세기로 유명했다. 전쟁발발시 곧바로 최전방에 투입되는 예비사단의 특성상 1년의 절반 가량은 실전에 대비한 야전훈련을 했다. 24시간 한숨도 자지 않고 철책선까지 갔다 부대로 되돌아오는 ‘역숙’이란 훈련은 인간 의 한계를 시험할 정도였다. 고된 행군에서 흑시라도 낙오자가 생기면 곧바로 동료들에게 피해가 간

는지 큰 사고는 없었다. 육군 28사단에서 육군도 일부가 가혹행위(소총)를 메고 행군을 하지만 중화기중대원들은 여기에 3개로 분리되는 박격포와 무반동총을 더 맨다. ‘이기지부대’라는 별칭을 가진 27사단은 군기가 세기로 유명했다. 전쟁발발시 곧바로 최전방에 투입되는 예비사단의 특성상 1년의 절반 가량은 실전에 대비한 야전훈련을 했다. 24시간 한숨도 자지 않고 철책선까지 갔다 부대로 되돌아오는 ‘역숙’이란 훈련은 인간 의 한계를 시험할 정도였다. 고된 행군에서 흑시라도 낙오자가 생기면 곧바로 동료들에게 피해가 간

군대 폭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